

광양시 지역 수산물 ‘K-푸드화’ 본격화

‘재첩’ 세계농업유산 등재 계기
장어·전어·뱃굴 등 경쟁력 강화
관광·홍보·유통 연계 전략 마련

광양시가 ‘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된 것을 계기로 재첩을 비롯한 지역 수산물의 ‘K-푸드화’에 본격 나선다.

27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재첩을 광양형 K-푸드로 육성하기 위해 ‘재첩파스타’ 등 특화 메뉴 개발과 음식 특화거리 안내판 설치,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 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 관광·홍보·유통이 연계된 종합 전략을 적극 추진한다.

광양은 예로부터 장어·전어·뱃굴·재첩 등 수산물이 풍부한 고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초남 장



왼쪽부터 광양의 대표 수산물인 ▲장어구이 ▲전어요리 ▲뱃굴 ▲재첩국 등 ‘광양 4대 수산물’ 모습.

〈광양시 제공〉

어구이는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광양을 대표하는 보양식으로 사랑받고 있다.

가을 제철 전어는 고소한 풍미로 지역 축제의 대표 먹거리로 자리 잡았고, 뱃굴은 섬진강의 명물로 매화축제 기간 광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봄철 별미로 각광받고 있다. 재첩은 국과 무침 등 다양한 요리로 사계절 미식가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이번 등재를 통해 섬진강 하류 일대에서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전통 어업문화가 국제사회로부터 보전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공식 인정받음에 따라, 시는 이를 지역 어업유산의 세계적 위상 강화와 수산업 산업화의 전환점으로 삼아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나이가 재첩을 비롯한 지역 수산물을 포함한 ‘광양 4대 수산물’ 체계를 확립하고 브랜드화 전략을 본격 추진해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시는 재첩을 광양형 K-푸드로 육성하기 위해 ‘재첩파스타’ 등 특화 메뉴 개발과 음식 특화거리 안내판 설치, 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 관광·홍보·유통이 연계된 종합 전략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수산자원 보전 ▲유통·가공 경쟁력 강화 ▲체험·관광 연계 ▲글로벌 브랜드화 4대 수

산 전략 축을 중심으로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재첩시범학교 운영, 거렁이 체험 프로그램, 기업 참여형 ESG 모델 개발, 손틀어업 전통 보전 사업 등 시민과 함께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어업 유산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정인화 시장은 “광양 섬진강 재첩은 지역민이 자연과 공존하며 지켜온 전통의 상징이자 미래세대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재첩뿐만 아니라 장어·전어·뱃굴 등 광양의 수산물을 세계적인 K-푸드로 발전시켜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은 국내 어업 분야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에 등재됐으며 공식 등재 인증서 수여식은 오는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양=양홍렬 기자

순천시 “지역 대표 맛집 음식 밀키트로 즐기세요”

효동회관 한우불고기 등 7종 출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구매 가능

순천시가 지역 대표 맛집과 손잡고 개발한 ‘순천맛집 밀키트’ 시리즈 7종을 공식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27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밀키트는 순천의 신선한 특산물을 활용한 프리미엄 간편식으로, 지역 대표 맛집 4곳이 직접 참여해 개발했다.

구성은 ▲효동회관의 한우곰탕·한우불고기 ▲향토정의 모링가보리굴비·산돌매떡갈비 ▲슬로우마켓의 한우불로네제파스타·칠계장 크림파스타 ▲솔밭곰창의 돼지곰창전골 등 총 7종이다.

시는 지난 1년간 ‘순천맛집 밀키트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조리·위생·상품기획 등 전문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해 제품의 완성도와 시장 경쟁력을 높였다.

모든 제품은 순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사용해 지역 고유의 맛과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최근 열린 품평회에서는 “식당의 맛을 그대



순천시가 지역 대표 맛집과 손잡고 개발한 ‘순천맛집 밀키트’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순천시 제공〉

로 재현했다”, “조리 과정이 간편하다”,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하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순천맛집 밀키트’는 각 매장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구매 가능하며, 향후 순천 로컬푸드 온라인몰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순천=정기 기자



김철우 보성군수가 열선루에서 열린 ‘이순신 장계 쓰기 대회’에 참가한 학생을 격려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 첫 ‘열선루 이순신 학술세미나’ 개최

상유십이 장계 역사적 고증

의병 항전사 호국정신 조명

보성군이 ‘제1회 열선루 이순신 학술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27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24~26일 보성을 열선루공원내 열선루에서 열린 학술대회에는 김철우 보성군수, 김경열 보성군의회 의장, 재회설 보성문화원장을 비롯해 군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과 (사)전남도이순신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열선루는 1597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습니다(今臣戰船尙有十二)”라는 장계를 올리며 조선 수군 재건의 결의를 다진 장소로 알려져 있다.

식전 행사로 열린 ‘이순신 상유십이 공연’은 큰 호응을 얻었다. ‘이순신 승전가 연주’, ‘승전무’, ‘상유십이 강강술래’ 등 12인의 예술단이 장군의 결의를 예술로 형상화해 열선루의 역사적

상징성을 한층 높였다.

세미나는 박정중 보성이순신문화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김병인 전 전남대학교 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첫 번째로 노기욱 전남도이순신연구소장은 ‘보성 열선루와 이순신 상유십이 장계’를 통해 이순신 장계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고증했다.

정현창 전남대 문화유산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보성 이순신 장군 유진 지명 고찰’ 발표에서 명교마을(백사정)과 군학마을(군영구미)을 중심으로 한 유진 경로를 문헌과 지형 분석을 통해 입증했다.

마지막으로 김상욱 목포대 도서관학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성군민의 임진왜변 활동’을 통해 보성 의병의 항전사와 호국정신을 조명했다. 김철우 군수는 “이번 학술세미나는 이순신 장군과 보성의 역사적 인연을 학문적으로 밝히고 그 정신을 후대에 전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추억·사랑 담다”

구례 지리산 단풍축제 개최

내달 1-2일 피아골 일원서

구례군은 27일 “다음 달 1-2일 지리산 피아골 일원에서 ‘제48회 지리산피아골단풍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에는 주무대인 피아골 단풍공원에서 ‘레트로, 복고 감성’을 주제로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첫날 지리산 산신에게 군민의 번영과 평안을 기원하는 단풍 제례로 막을 올리며 ▲참뽕 감해진 작가의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태권도 시범 ▲전통 퓨전 국악 공연 ▲삼흥 단풍콘서트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무대가 펼쳐진다.

둘째 날에는 ▲3인3색 버스킹 공연 ▲마술쇼 ▲낭만 색소폰 공연 등 가을의 정취를 더하는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된다.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색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울긁불긋 단풍 패션쇼쇼쇼’, ‘나도 가수다 복고노래자랑’을 비롯해 레트로 감성다방, 복고의상 체험, 군밤 굽기·달고나 만들기, 보물찾기, 단풍술 만들기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이 마련돼 있다.

또한 지역 특산품 판매장과 오색비빔밥, 손두부, 산채김밥 등 먹거리 부스도 운영된다.

같은 기간 산동면에서는 지리산 베이시캠프 및 산수유 열매축제도 함께 열려 구례군 전역이 가을 관광지로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방문객의 안전과 교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깊어가는 가을, 단풍과 사람이 어우러진 피아골에서 방문객 모두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장성 황미르랜드 공원 친환경 디자인 공모 ‘우수’

조화·창의·실용성 등 호평

장성군은 27일 “‘황미르랜드 어린이 친환경 테마공원’이 ‘제10회 전남도 친환경 디자인 공모전’에서 기설치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성·조화성·창의성·실용성 등 주요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상위에 올랐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실용적인 동선, 창의적이면서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황룡강 하중도에 조성된 ‘황미르랜드 어린이

친환경 테마공원’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황토 맨발 산책로’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한 놀이 시설과 자연 경관의 매력을 살린 조경이 돋보인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대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황미르랜드 어린이 친환경 테마공원’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겨 찾는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정철원 담양군수와 직원들이 ‘마주 온(溫)데이’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 ‘마주 온(溫)데이’ 성료

소통의 장…신뢰·공감 문화 확산

담양군은 27일 “매월 군수와 직원이 함께하는 정기 소통 프로그램 ‘마주 온(溫)데이’를 운영하며 조직 내 신뢰와 공감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주 온(溫)데이’는 ‘마주 온다’는 의미와 ‘따뜻한(溫)’ 공직문화를 결합한 이름으로,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감하는 자리다.

이번 10월 ‘마주 온(溫)데이’는 군민을 위해 친절한 응대를 실천한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모

범적인 업무 수행으로 귀감이 된 ‘베스트 공무원’ 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민원 처리가 아닌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응대하려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군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따뜻한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여러분의 친절한 태도와 헌신이 곧 담양군의 이미지를 만들어간다”며 “작은 친절이 큰 감동으로 이어지는 공직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장흥한우 레시피·가공상품 개발 품평회

곰창전골·표고떡갈비 등

장흥군은 27일 “이날 오전 장흥축산농협에서 열린 ‘장흥한우 레시피 및 가공상품 개발 품평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장흥군수와 군의회 의장 및 의원,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시식 및 품평을 진행했다.

〈사진〉

품평회에는 새로 개발된 가공상품 ‘한우곰창전골’과 ‘표고한우떡갈비’ 2종이 선보였으며 레시피 개발 메뉴로는 불고기전골·양념만두·샤

브샤브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표고한우떡갈비와 샤브샤브는 장흥읍 내 3개 식당에 레시피가 전수돼 현재 인기 메뉴로 판매 중이다.

참석자들은 시식 후 품질·조리 편의성·맛·포장 디자인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으며 장흥한우 특유의 맛과 높은 품질이 잘 살아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한우의 상품화를 통해 지역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흥=노형록 기자